신뢰와 고객감동 서비스로
국내·외 엔지니어링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주] 세진엔지니어링
TEL : 062-384-6333
대표전화 : 1588-4556

전남매일
www.jndn.com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제9085호 (음력 2월 2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062)720-1000

사랑과 정성으로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모시고
보살피겠습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062) 412-2000
행복주간보호센터

톡톡뉴스

제주항공, 3월 'JJ멤버스위크'

제주항공이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제주항공 회원을 대상으로 월 1회 할인 항공권을 판매하는 이벤트인 'JJ멤버스위크'를 진행한다.

이번 멤버스위크를 통해 국내선 6개, 국제선 33개 총 39개 노선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탑승 가능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JJ멤버스위크는 제주항공 공식채널로 구매 시 국내선 최대 5%, 모바일 앱으로 구매 시 국제선 왕복 최대 2만원까지 할인된다. VIP와 GOLD회원이 국제선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최대 3만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신규회원이면 가입 후 최초 예약 시 국내선 운임 7%, 국제선 운임 5% 중복 할인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결제 시 최대 2만원까지 즉시할인 및 중복 할인 혜택이 있다. /오지현 기자

그래픽 경제

카드·보험사 평균 연봉 1억 넘어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으로 카드회사와 보험회사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곳이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삼성카드가 1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1억3,602만원으로 최다였다.

'출산 기피' 광주…출생아 감소율 전국 최고

1월 626명…전년비 14.8%↓
데드크로스 현상 16개월째
혼인, 코로나 이전 수준 미달

광주지역 출생아 수가 출산·혼인 기피 등에 따른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1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일시적일뿐 팬데믹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626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9%(109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감소율은 14.9%로 전국 평균(-6.0%)을 뛰어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대구(-10.4%), 부산(-10.1%), 충북(-9.1%) 순으로 이어졌다.

인구 1,000명 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8명 줄어들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유지됐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은 경제적 여건 등 각종 부담으로 인해 출산과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됐던 결혼식이 최근 다시 재개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는 등 혼인 건수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 지역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129건 증가한 497건으로 증가율은 세종(37.5%)다음으로 높은 35.1%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월 649건, 2018년 1월 614건, 2019년 1월 583건 2020년 1월 529건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미뤘던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혼인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전과 비교해서는 많이 감소했다"며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감소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의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으로 동월 기준 사상 최소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종전 사상 최소치는 지난해 1월(2만4,665명)이었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6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기준 감소세를 이어갔다.

/홍승현 기자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국세행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 '똑똑한 홈택스' 만든다

챗GPT 기반 세무상담 도입 추진
'대화형' 화면 전면 재설계 계획

국세청이 챗GPT와 같은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무상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국세청 대표 서비스인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고도화해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의 납세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국세행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모범 납세자와 각계 전문가 등 국세청 외부 인사 10여명이 참여해 국세행정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해 지능형 홈택스 전면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특히 챗GPT 등 AI 기반으로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메뉴를 일일이 찾아 클릭할 필요 없이 납세자가 세금 관련 내용을 대화형으로 물으면 AI가 답변하는 식으로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이 개인별 필요 서비스 메뉴를 추천하는 맞춤형 포털도 개발하기로 했다. 신고·납부·고지·민원 등 5,300개에 이르는 홈택스 화면은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하고, 모바일 서비스와 대화형 전자신고도 늘린다. /이연수 기자

첨단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박차
지능분산에너지연구센터 구축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3차년도(2023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은 산업단지를 디지털·저탄소화·에너지 자립화시켜 경쟁력있고 환경친화적인 제조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광주첨단산단 등 전국 15개 주요 산업단지에서 추진중이다.

산단공 광주본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세부 촉진사업별 수행기관과 연차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추진되는 세부사업은 ▲산단 안전·편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133억원)' ▲분산에너지 분야 기업지원을 위한 '산단형 지능분산에너지 기업공동연구활용센터 구축사업(217억원)' ▲입주기업 물류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사업(65억원)' 등 총 3건이다.

이외에도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공모절차가 진행중인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사업(3년, 국비 180억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3년, 국비 200억원)에 대한 공모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홍승현 기자